

신석기시대 석기·골각기의 연구 현황과 과제

윤 정 국 *

목 차

- I. 머리말
 - II. 신석기시대 석기의 연구 동향과 과제
 - 1. 석기연구의 연대별 동향
 - 2. 석기연구의 현황와 과제
 - III. 신석기시대 골각기의 연구 동향과 과제
 - 1. 골각기연구의 연대별 동향
 - 2. 골각기연구의 현황와 과제
 - IV. 맺음말
-

* 전남대학교

국문요약

본고는 신석기시대 석기와 골각기의 연구현황(논문)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70년대 이전의 석기연구는 단순한 소개와 개괄적인 설명이 중심을 이루었고, 80년대에는 석기 기종에 대한 형태학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90년대에는 유적에 대한 생업 검토와 비교, 유적의 성격과 시기적인 변천, 내륙지역 출토 석기의 용도와 사용방식, 농경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 2000년대에는 석기와 관련된 논문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연구주제도 다양해졌다. 석기제작수법과 사용흔 분석, 석재 원산지와 교류 연구가 새롭게 시작되었지만 석기조성과 기종별 석기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2010년대에는 기존의 해석을 검토하고 추가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의 정밀성과 내용이 보강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었던 제작, 기능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석기연구의 현황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었다. 공간적 범위의 광역화, 유물의 공간분석, 타제석기에 대한 연구, 석기제작과 기능, 석기조성과 생업의 정밀화, 교환과 유통에 대한 연구, 초창기 석기문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골각기의 연구는 50년대에 북한에서부터 시작된 이래 60년대 까지 동물뼈에 대한 동정과 단순한 추론이 이어졌다. 70년대에는 남한에서도 자료를 소개하거나 비교하는 연구가 나타났다. 80년대에는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유적 단위로 골각기를 분류하거나 제작기법, 자른 흔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90년대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전시기를 망라하여 골각기를 검토하고 환경적인 요인과 접목시켜서 시공간적인 변화상을 살피는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2000년대에는 기존의 연구경향을 포함하여 개별기종과 생업에 대한 연구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2010년대에는 연구의 수량이 많지 않고 대체로 이전 연대의 연구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골각기 연구는 동정에서 시작하여 생업에 대한 연구로 나아가고 있지만 골각기의 분류에 대한 기준과 통일성, 용도와 사용방식의 검토, 골각기문화의 종합적인 비교 검토, 전문숙련자의 교육 등이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 볼 수 있었다.

Ⅰ 주제어Ⅰ

신석기시대, 석기, 골각기, 연구동향

I. 머리말

신석기시대 연구는 〈한국사〉 시리즈를 통해 체계적으로 집대성되어 왔고(국사편찬위원회 1973, 1983, 1997), 근래에는 개설서를 통해 종합되고 있다(한국고고학회 2007, 2010;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1, 2012, 2014). 그리고 80년대 후반부터는 학사적인 관점에서 남한과 북한의 신석기시대 연구사를 집대성하고 연구현황을 살펴 앞으로의 전망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었다(안승모 1988; 신숙정 1990; 이성주 1992). 특히 이성주는 연구사 서술의 관점을 새로운 신석기시대 자료와 축적과정, 연구 경향의 변화와 다양화, 인식체계의 변화, 이데올로기 등으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까지의 신석기시대 연구사를 크게 맹아기(1945년 이전), 준비기(1945~1970), 형성기(1970~1980), 발전기(1980~) 등 4단계로 나누었다. 각 단계별로 뛰어난 논문과 보고서 등을 모두 망라하여 찾아내고 연구 성과를 종합한 점은 후학으로써 그 노고를 치하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 역시 연구사에 바라보는 관점이나 단계설정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다. 다만 본고의 주제가 신석기시대 석기와 골각기에 한정되다 보니 단계별로 제시된 연구사를 그대로 따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과 달리 한정된 주제에서의 연구 경향과 과제를 찾아보고자 하는데 따른 입장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신석기시대 석기의 연구현황은 근래에 정리되고 앞으로의 전망이 제시되었지만(하인수 2011; 이영덕 2015), 골각기에 대한 연구현황은 개별 논문에서 주제별로 정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석기와 골각기의 연구가 미흡하고 부족한 것은 짧은 연구 기간과 연구자의 부족에 기인한다. 이것은 연구사적으로 신석기시대 연구가 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편년체계 마련과 문화양상을 파악하는데 집중되어 왔기 때문이지만 근래에는 국내에 한정하여 큰 범주 내에서 편년체계가 완성되면서 국경을 넘어서 문화의 병행성을 연구하거나 주거지, 환경, 석기, 동식물유체, 압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신석기시대를 다양한 관점에서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본고는 신석기시대 석기와 골각기의 연구현황과 앞으로의 과제를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문의 구성을 석기와 골각기로 나누고 연년대별로 연구현황을 정리하고자 한다. 이때 연구 현황의 중점대상을 논문에 한정하고 보고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물론 보고서 중에 대표할 만한 체제와 내용이 담겨 있는 것도 있지만 지면의 한계와 연구자의 연구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논문으로 한정한다. 논문은 10년 단위로 하고 연구 주제별로 묶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각 논문을 주제에 따라

계량화하여 연구 경향을 파악한 이후에 앞으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Ⅱ. 신석기시대 석기의 연구 동향과 과제

1. 석기연구의 연대별 동향

1) 1970년대 이전의 석기연구

한국의 신석기시대 석기의 연구는 해방되기 전까지 일본학자에 의해 유적에 대한 단편적이고 편향된 소개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국전쟁 및 정치적인 혼란을 거치는 1950~60년대에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 당시의 연구는 국가가 분단됨에 따라 남북한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남한에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채집된 유물에 대한 간단한 견해를 소개하였던 반면에 북한에서 라진 초도, 궁산리, 지탑리 등 신석기시대 주요 유적이 발굴 조사되었다(도유호 1961; 김원룡 1963).

그리고 196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남한에 북한의 발굴조사와 연구 성과가 소개되었고, 남한 연구자들에 의해 농소리 패총, 다대포 패총, 신암리 패총, 암사동, 동삼동 패총 등 중요 유적들이 발굴되면서 신석기시대 연구의 활기가 높아졌다. 또한 발굴 지역의 토기를 층위적으로 검토하거나 북한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토기 문양과 기형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편년화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신석기시대의 전반적인 조사와 이에 따른 연구성과는 신석기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는 첫걸음이었다. 그렇지만 석기연구는 여전히 미진하여 단편적이고 직관적인 관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1970년대에는 60년대에 증가된 자료를 토대로 한국 선사시대를 개관하는 가운데 석기의 종류와 특징을 소개하고(국사편찬위원회 1973;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김원룡 1973, 1977), 석기를 기능별로 추정하면서 중국의 석기와 비교하였다(이춘영 1970, 1973; 최무장 1978). 최무장은 청호리, 지탑리, 궁산리에서 출토된 석기를 중국의 석기와 비교를 통해 북방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곱배팽이와 유구석부는 한국의 특징적인 농경도구로 파악하였다.

2) 1980년대의 석기연구

1980년대에는 북한에 비해 남한에서 신석기시대 유적의 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석기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는 크게 3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지역별로 석기를 다루거나 개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김원룡 1981; 황용훈 1983). 특히 황용훈은 암사동과 미사리 유적에서 채집된 석기를 토대로 도구 제작형태 및 기능에 대한 검토를 한 결과 어로채집문화에서 점차 어로를 기초로 한 초기 농경사회로 나아간다고 보았다. 특히 석기를 토기와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다루어 검토한 점은 주목된다.

둘째, 한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를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장호수는 1978년에 발굴된 상노대도 패총의 자료를 대상으로 제작수법과 종류, 쓰임새 등을 분석하여 석기문화를 5기로 나누고 변화상을 제시하였다(장호수 1982). 석기는 아래층에서 상층으로 갈수록 편석기의 비중이 감소하고 거칠어지면서 퇴화되지만 간석기의 개수는 늘어난다고 하면서 구석기시대와의 계승성을 언급하였다.

셋째, 개별 석기 기종에 대한 분석이다. 모두 농경도구를 통해 농경에 대해 언급한 논문들이다. 지건길과 안승모는 한반도 선사시대 곡류와 농구를 대상으로 지역과 유물의 맥락을 검토하여 신석기시대 농경에 대해 정리하였다.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탄화미와 탄화 잡곡류 자료를 집성하고 농경과 관련된 굴지경작구, 수확구, 조리구로 나누어 체계화하면서 확실한 농경이 실시되었음을 피력하였다(지건길·안승모 1983). 이후 길경택은 앞서의 연구에서 나아가 선사시대 농경과 농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신석기시대 전기부터 뒤지개농사 및 팽이 농사를 지었다고 하였다(길경택 1985). 또한 안승모는 농경도구로서 수확구와 석제농구에 집중하여 두 편의 연구 성과를 제시하였다. 하나는 수확구의 발생과 변천을 살펴보기 위해 한반도와 만주지역에서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에 걸쳐 확인되는 석도를 검토하였고, 다른 하나는 선사시대 석제농구의 종류와 변천을 살펴보고, 중국지역과의 비교를 통하여 기원과 전파를 살펴보았다(안승모 1985, 1987).

3) 1990년대의 석기연구

199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구제발굴조사가 진행되면서 유적의 조사 수량이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석기연구는 토기에 비해 관심이 적은 편이었다. 그래도 80년대 이후에 석기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생업에 대한 접근과 개별 석기기종에 대한 연구는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였다.

먼저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의 조합과 유적 주변 환경을 검토하여 생업을 연구하고 있다. 이기길은 암사동과 동삼동, 오산리 유적의 도구갯춤새를 통해 유적의 생태환경에 알맞은 생산 활동을 설명하였고(이기길 1991), 신숙정은 남해안지방의 자연환경, 유적과

유물을 검토하면서 생업을 연구하였다(신숙정 1994). 두 논문은 도구조성과 생물유체에 기초한 생업유형의 특징과 변천과정에 대한 연구들로 자원영역분석을 도입하여 신석기인의 생계전략을 입지, 생태환경, 주거양식, 도구조성을 통해 생계유형의 차이와 변화를 밝혔다. 기존의 나열식 전개과정에서 전환하여 생업유형을 복원하는 새로운 연구방향이었다.

둘째는 개별 석기 기종을 검토하여 형태와 변천을 연구하는 경우이다. 장명수는 신석기시대 어구를 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편년을 검토하였는데, 석제와 골제를 망라한 어로구 전체에 대한 자돌어구, 조어구, 망어구에 대한 형태 분류는 어로구 연구의 근간이 되었다(장명수 1991). 안승모는 동북아시아의 범위 속에서 수확구의 종류와 분포를 살피고, 과거에 작성된 논문을 묶어 책으로 출판하면서 北中國의 新石器時代의 農具를 소개하였는데, 도구를 통해 동아시아 초기농경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고찰하는데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안승모 1993, 1998).

한편 농경도구와 관련하여 새롭게 인지된 석기(굴지구)에 대한 기능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다. 먼저 이강승·박순발은 굴지구를 지탑리, 송죽리, 쌍청리의 출토품과 비교하면서 석제보습 또는 목재제작구나 찰절구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고(이강승·박순발 1995), 김건수는 호남지방의 신석기시대 생업을 검토하면서 굴지구를 단순히 보습으로 상정하기 보다는 새롭게 채집도구로 분류하였다(김건수 1998). 이에 반해 송은숙은 호남내륙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을 정리하면서 유적의 입지와 출토유물을 통해 농경 가능성을 확신하면서 농경도구로서의 기존의 견해를 지지하였다(송은숙 1998). 이러한 굴 지구에 대한 논의는 200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 박준범은 선사시대 한강유역의 석촉을 형식 분류하고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시대에 이르는 통시적인 연구로서 형식분류는 겉면의 상태(제작기법), 경부의 유무, 경부의 단면형태를 기준으로 6가지로 구분하고 크기를 측정한 이후 교차·분산분석 등을 이용하여 해석한 점은 새로운 연구방법이었다(박준범 1998, 2006).

셋째는 단일 유적 출토 석기에 대한 소개와 해석이 여전히 지속되었다. 하인수는 용호동과 다대포 출토 석기류를 소개 및 검토하였다(하인수 1991). 이청규와 고재원은 제주도 고산리 유적 출토 석기를 검토하였고(이청규·고재원 1995), 이후 고재원은 이를 바탕으로 고산리 유적의 펜석기를 대상으로 하여 형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고산리 유적의 펜석기를 가공흔적과 인위성을 기준으로 성형석기와 폐기석기로 구분하고 돌감과 유물수량을 계량적으로 분석하고 제작수법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수렵 또는 어로와 관련된 경제행위를 상정하였는데 당시의 초창기 석기문화

를 파악하는 자료로서 의미가 있다(고재원 1996).

그리고 마지막으로 90년대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한 논고도 있다. 신숙정은 지역별 석기를 검토하여 정리하였고(신숙정 1997), 김건수는 신석기시대를 비롯한 선사 시대 어로문화에 대한 종합화를 하였다(김건수 1999).

4) 2000년대의 석기연구

2000년대에 들어서 석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연구자가 늘어나면서 연구주제도 다양화되었다. 이전에 비해 개별 석기종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었고, 유적 단위로 석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증가하였다. 또한 뎀석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제작기술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그리고 나아가 석기사용흔을 통한 기능연구, 석재산지분석을 통한 교역과 생산 검토 등 새로운 연구 방법도 시도되었다. 또한 발굴조사의 누적에 따라 석기자료가 증가하면서 석기조합을 통한 생업연구도 세분화되었다. 이외에 고산리 유적의 석기를 통해 초창기의 석기문화에 대한 단편적인 검토도 있었다.

각 연구 경향에 따라 살펴보면, 먼저 개별 석기종에 대한 연구가 있다. 김선지는 굴지구를 포함시켜 석부라는 큰 범주에서 형식 분류를 시도하여 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석부의 변화상과 분포상을 살펴본 결과 타제석부→인부마연석부→마제석부라는 단선적인 도식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김선지 2000). 이동주와 고동순은 마제석촉을 통해 지역별 특징과 변화를 살펴보면서 상호 관련성을 검토하였다. 이동주는 한반도에서 출토된 마제석촉을 기부 형태에 따라 3개의 형식으로 대분류하고 평면형태에 따라 소형식으로 나누고 시공간적인 검토를 한 결과 마제석촉은 동해안의 압인문하층문화단계에서 발생하여 전기에 남해안으로 전파되지만 서북지역에서 다양한 형식의 돌연 등장하고 중기이후에 남쪽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지역별로 다양한 형식이 나타난다고 보았다(이동주 2003, 2010). 고동순은 동해안지역의 마제석촉을 평면형태와 기부형태로 4개 형식으로 구분하고 시기에 따라 일자형 석촉이 먼저 사용되다가 중기이후에는 유연형 석촉이 중심을 이루고 삼각형과 보트형은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고동순 2006). 박근태는 고산리 유적의 타제석촉을 처음으로 경부와 밑, 몸통의 형태를 고려하여 6가지의 형식으로 설정한 이후 형태적 특징과 제작기법을 검토하였다(박근태 2006). 이후 제주도지역의 초창기단계의 석기를 찾아 용도별로 구분하고 시공간적인 변화상을 살펴 보았다(박근태 2011). 김충배는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낚시바늘에 대하여 형식을 나누고 분포양상을 살핀 후에 주변 환경을 기준으로 그 상관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후에

논고를 수정 보완하였다(김충배 2002, 2003, 2004). 김경규는 한반도의 신석기시대 어망추를 재료와 제작형태에 따라 형식 분류하고 분포를 검토하고, 어망추의 크기에 따라 대형과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환경에 따라 크기와 어망법의 차이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시기에 따라서는 전기에 출현하지만 중기이후에 수량이 감소하는 것은 농경과 관련 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김경규 2003). 신종환은 유적에서 출토되는 굴지구의 자루장착과 사용방식을 검토하였고, 이후 내륙지역 출토 어망추를 분석하여 어망법과 결구방식을 추정하여 복원하였다(신종환 2000, 2006). 그리고 니시타니 다다시는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출토된 갈판(안형마구)을 비교하여 신석기시대 농경문제를 다루었고(西谷正 2002), 카미조 노부히코는 한반도와 일본 북부 구주지역에서 출토되는 선사시대 제분 제작구를 상석과 하석으로 나누고 평면형태, 단면형태, 사용면을 통해 형식을 나누어 시공간적인 분포양상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반도는 북부에서 남부로, 내륙부에서 해안부로 그 수량이 감소하고 그 형태도 재래의 세트 형상에 가깝다고 하고 그 배경을 생업의 차이라고 파악하였다(上條信彦 2005).

둘째는 유적 단위로 출토된 석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적의 성격을 밝히려는 경향이 있었다. 먼저 이현종은 함평 장년리 유적 출토 뎀석기를 기술형태학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석기를 검토하면서 석기채집과 제작전략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이현종 2000). 신숙정과 손기언은 오산리 유적에서 출토된 뎀석기를 구석기시대 석기분류체계를 바탕으로 석기를 형태적으로 분류하고, 기존에 조사된 유적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뎀석기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신숙정·손기언 2002). 구자진은 대천리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를 종류별로 나누고 검토하였고(구자진 2004), 윤정국은 진그늘 유적에서 출토된 뎀석기의 제작수법과 과정을 단계별로 검토하였다(윤정국 2006). 박진선은 노래섬 패총 출토 석기를 층위별로 검토하여 시기적인 변화 양상을 제시하고, 이후에 이를 수정·보완하였다(박진선 2006, 2011). 이현종과 김건수는 여서도 패총 출토 석기를 대상으로 하여 기술형태적 분석을 시도하였고(이현종·김건수 2008), 하인수는 범방 유적의 석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며(하인수 2010), 하영중은 울진 죽변리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를 통해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자 하였다(하영중 2010).

한편 제주도지역에서 출토된 초창기의 석기에 대한 검토가 구석기 및 신석기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었다. 강창화는 고산리문화를 제시하면서 토기와 함께 석기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면서 아무르 하류의 3단계문화인 오시포프카문화와 관련성을 제기하고 해수면의 상승과정에서 중국 동북지방을 거쳐 황해 벌판의 강줄기를 따라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강창화 2005, 2006). 또한 이현중은 고산리 유적의 유기물혼합토기와 더불어 화살촉, 창끝, 석창 등 양면박리원칙으로 제작된 석기들이 함께 출토되는 것을 후기구석기 최말기에서 신석기시대로 이행되는 과도기로 판단하였다(이현중 2002). 이러한 고산리유적의 석기는 구석기학자들의 관심을 야기시켰는데 이형우는 구석기시대 썸베찌르개와 고산리유적의 포인트 석기를 비교하여 사냥보다는 전투용에 가깝고 제작에 치중한 측면이 가깝다고 하였다(이형우 2005). 장용준은 고산리문화를 세석인문화종말기(12,000~8000B.P.)로 설정하고 석촉의 등장, 변형세석인석기의 제작, 썰기형기술의 소멸, 소형양면찌르개가 출현한다고 보았다(장용준 2006).

셋째는 석기제작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현중은 장년리 당하산출토 굴지구를 분석하여 가파른 대각선떼기, 수직떼기, 단순수직 눌러치기 등 3가지의 제작수법을 제시하고, 그 기능을 농경 또는 굴광, 벌목 등 호환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이현중 2000). 윤정국은 단일 유적의 석기 제작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진그늘 유적을 대상으로 석기를 검토하여 제작과정과 기술을 제시하였다. 이후 굴지구의 형태와 인부의 모습을 통해 형태를 분류하고 수직치기, 빗겨치기, 두들겨치기 등 제작수법을 공정별로 제시하고 단계별 제작특징을 살펴보았다(윤정국 2007, 2009).

넷째는 석기 사용흔 관찰을 통한 기능을 밝히려는 연구가 있다. 윤지현은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석부를 대상으로 사용흔 분석을 시도하여 기능을 유추하고, 지역별 수량변화를 파악하여 생계양상을 검토하였으며(윤지현 2006, 2007), 김성욱은 한반도 신석기시대 초기농경을 검토하기 위해 굴지구와 석도, 갈돌과 갈판 등의 석기를 대상으로 사용흔 분석을 시도하고, 실험석기와 비교분석하였다. 이후 갈머리 유적과 진그늘 유적의 석도를 분석하여 수확구로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김성욱 2008a, 2008b).

다섯째는 지역단위로 석기를 통합하여 분석하거나 석기조합을 통한 생업연구가 있다. 80년대 비해 연구 범위도 늘어나고 농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연구가 광역화되고 세분화되었다. 임상택은 중서부지역 석기의 조합상을 정리하고 개별 석기기종의 형태변화를 고찰하여 석기의 시기적 변화과정을 찾아보려 하였다. 이후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물질문화 변동을 4단계로 분기설정하고 도구체계와 취락구조를 중심으로 살펴보아 초기농경의 수용과정과 확산을 종합화하였다. 특히 초기농경의 도입모델과 변동모델을 도식화하여 제시한 점은 잡곡농경에 대한 이론적인 무장과 더불어 침선문계 집단의 확산을 이해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였다(임상택 2000, 2006). 최종혁은 자연유물 및 석기, 골각기 등 도구조성을 분석하여 수렵활동, 채집활동, 어로활동, 농경활동 등 생업활동을

유형화하고, 석기 조성비율과 자연유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시공간적인 생업형태와 변화를 제시하였다(최종혁 2001, 2004, 2005, 2006). 이영덕은 서해안과 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어로구의 출토양상과 어로방법을 검토하여 망어법, 자돌어법, 궁시어법, 조어법, 패류채취, 해체가공 등으로 나누었다(이영덕 2006). 그리고 송은숙은 유적의 입지와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석기시대 농경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지역별 생계양식의 변화를 빗살무늬토기 문화의 확산과 함께 점진적으로 어로중심의 채집경제, 강화된 식물 채집경제, 새로운 생계전략의 도입(조의 경작)이라는 단계별 적응전략을 제기하였다(송은숙 2001, 2002). 하인수는 개별 기종의 특징과 조합상을 통해 시기별 석기양상과 변화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는데 남해안의 토기와 석기, 골각기를 망라하여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토기편년을 종합하고 생업경제를 밝히는 연구에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하인수 2006a, 2006b, 2009a). 정미란은 해수면 변동과 관련하여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조기와 전기 유적에서 출토된 토기와 석기를 검토하여 어로 활동을 파악하였다(정미란 2007). 박준범은 중서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석기를 용도별로 분류·검토하여 생업형태와 특징을 정리하였고(박준범 2007, 2008, 2009), 박근태는 제주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신석기시대 초창기단계의 석기를 찾아 공통점을 파악하려 하였다(박근태 2009). 포염령은 중국의 산동성 교동반도와 한반도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과 유물을 검토하고, 석기조성을 통해 생계양식의 변화상을 비교하였다(包艷玲 2009). 이정재는 강원도 동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출토되는 석기를 분석하여 시기별 생업양상과 변천을 설명하였다(이정재 2009).

여섯째로 석재 산지 분석과 이와 관련된 생산과 교역에 대한 연구경향이 있다. 석재 산지 분석은 동삼동과 범방, 연대도 패총 출토 흑요석을 분석하는 것처럼 특정 석재에 대해 목적성을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거나(高橋豊 외 2003; 조남철 2005), 진안 갈머리·노래섬 또는 문암리 등 유적에서 출토되는 석재의 암종을 분석한 경우도 있다(김주용 외 2005; 조미순 외 2013). 근래에는 보고서 말미의 부록에 석재에 대한 암종분석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석재연구에 대한 인식변화가 진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석재분석에 따른 해석의 문제에 있어 이상균은 남해안지역과 일본 구주지역의 석기군을 비교하여 교류관계를 검토하였고(이상균 2003), 하인수도 한반도 남해안과 일본 구주 지역간의 상호관계를 물자유통과 교역(교환)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교류의 주체는 해안지대에 거주하는 어민으로 보고 초기에서 전기에 걸쳐 교류가 집중되지만 후반기까지 지속되면서 원시적인 교역시스템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특히 구

주산 흑요석을 남해안 거점집단에 의해 재지의 여러 집단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았다(하인수 2006). 그리고 임상택은 대한해협 양안지역 교류관계를 사회경제적 변화과정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교류사를 3기의 획기로 나누었는데 1~2기의 변화는 교류강도가 약했는데 한반도 남부지역에 초기농경의 확산과 구주 소바타토기문화의 남부지역 확산현상과 관련되고, 2~3기의 변화는 대마도에서 한반도 남해안지역으로 이동되는데 한반도 남부지역 생업시스템의 와해 및 구주 조몬 후기단계에 서일본으로부터 새로운 문화가 대거 유입되는 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았다(임상택 2008).

5) 2010년대의 석기연구

2010년대 초반에는 지역성이라는 주제로 한반도의 석기를 정리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다양한 명칭과 각기 다른 석기분류에 대한 점검을 위해 석기의 분류와 제작방법에 대한 집중토론회를 가졌다. 연구 주제는 개별석기에 대한 형태적인 연구, 사용흔을 통한 기능 분석, 지역 단위로는 하는 석기형태분석과 석기조합을 통한 시공간적 변천 연구가 있다.

먼저 개별석기에 대한 형태적인 연구는 결합식 조침을 주제로 논고를 정리한 천성주와 최득준이 있다. 이들은 선학들의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새롭게 추가된 자료를 통해 결합식조침을 재정리하였다(천성주 2010; 최득준 2012). 박성근은 굴지구를 석부의 한 종류로 포함시키고 남부지역에서 출토되는 석부에 한정하여 형식 분류를 시도하였다. 그 후에 시기적인 수량 변화와 특징을 살펴 전기 후반을 기점으로 2기로 나누고 농경과 관련하여 변화를 검토하였다(박성근 2012, 2013). 지영배는 한반도에서 출토되는 석재수식과 결상이식 등 장신구와 이형유물을 대상으로 공간적인 특징을 살펴 3기로 획기를 나누고 변천양상과 원인을 제시하였다(지영배 2013). 최경용과 문수균은 찔개살의 제작과 사용에 대한 실험을 통해 기능을 파악하려 하였고(최경용·문수균 2013), 이상규는 해안지역에서 출토된 작살을 분류하고 작살을 사용방식과 재질에 따라 대별하고 세부적으로 형식을 나누었다. 그리고 공간적 특징을 살펴 2기의 획기로 나누어 변화상을 보았다(이상규 2014). 하재령은 석촉, 찔개살 등을 첨두형석기로 통괄하고 겹면의 흔적, 평면과 기부의 형태, 크기를 통해 18개 형식으로 나누고 시간적인 변화와 지역적인 특성을 검토하였다(하재령 2015).

한편 김경진은 석기 사용흔 분석의 발전과정, 관찰과 해석에 대한 방법론, 석기 흔적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이론적인 정리를 실시하였다(김경진 2010). 이후 김경진과 김소영은 인천 운서동 유적 출토 석영제 석기에 대한 기능 파악을 위해 민족지학과 실험자료를 취

득하고 사용흔 분석을 시도하였다(김경진·김소영 2012). 또한 김영준·김경진·이한주는 보령 송학리 조개더미에서 출토된 펜석기를 대상으로 하여 쓴자국을 분석하여 자루의 장 착과 갯벌 또는 땅을 파는 작업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김영준 외 2015).

둘째, 지역 단위로 석기를 해석하는 연구는 2011년에 신석기시대 석기의 지역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된 논고를 시작으로 한다. 이정재는 오산리C 유적 출토 석기를 중심으로 동해안지역의 생업변화를 살펴보았다(이정재 2011). 윤정국은 남부 내륙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비율과 석기조성을 통해 내륙지역의 석기변천양상을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윤정국 2011). 안성희는 남해안지역을 대상으로 석기조성의 변천과 양상을 정리하였고(안성희 2011), 박근태는 제주도지역의 신석기시대 초기 유적에서 출토된 석기를 검토한 이후에 시기별 양상과 변천을 검토하였다(박근태 2011). 그리고 윤혜나는 중서부지역의 생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석기를 분류하여 석기조성을 비교하고 계량적으로 분석한 이후 지역별 변화를 검토하였다(윤혜나 2011). 유지인은 중서부지역의 취락 유적에서 출토되는 석기를 대상으로 다양도(diversity) 분석을 실시하여 중·후기의 석기변화상과 생업을 검토하였다(유지인 2012). 또한 소상영은 중서부지방의 신석기시대 생계와 주거체계를 연구하면서 석기조성을 이용하였고(소상영 2013), 조은하는 강원 영동지역 농경수용과 생계양상을 변화를 검토하고자 석기구성비율 변천을 살펴보았다(2014).

그리고 근래에는 석기연구의 기초를 확립하기 위해 명칭과 분류, 제작수법에 대해 집중토론회가 이루어졌다. 박근태는 신석기시대 석기 용어와 분류에 대해 발간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용어를 비교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였으며(박근태 2014), 윤정국은 개별 석기의 제작수법을 검토하여 유적 단위의 석기제작체계를 제시하였다. 이후 각 시기별 유적을 선정하고 기종별 석기를 검토하여 3가지의 제작체계에 20가지의 제작방법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소재와 제작방법에 따라 4단계의 변화상을 확인하였다(윤정국 2014, 2015).

최근에는 한국구석기학회에서 고산리 유적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박근태는 고산리 유적의 석기를 분류하고 형식적인 특징을 검토하여 고산리 유적이 지역문화 중첩 속에서 수렵·채집경제에서 어로·수렵·채집경제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았다(박근태 2015). 김정배는 고산리 유적의 석기가 구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이어지는 기술형식학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았는데 그 기원을 한반도에서 동해안을 따라 전파되거나 사람의 이주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였다(김정배 2015). 이기길은 강정동과 고산리 유적 줍돌날석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강정동은 줍돌날의 형식 중에 삭편계나 썰기형에 속한다고 보았지만 고산리의 줍돌날은 전형적인 것이 아니고 돌날이나 긴격지를 떼어내거나

눌러다듬기(pressure retouch) 과정에서 떼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이기길 2015).

2. 석기연구의 현황과 과제

1) 석기연구의 현황

지금까지 살펴본 신석기시대 석기에 대한 연구방법과 주제를 10년 단위로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석기연구는 1970년대 이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980년대이다. 하지만 연구의 증가는 2000년대 부터라 할 수 있다. 특히 주제별로 보면 석기 기종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와 더불어 유적에 대한 성격 분석, 석기조성에 통한 생업연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10년에도 유사하게 진행되는데 전체 주제별 비율을 보면 석기 기종에 대한 연구와 석기조성을 통한 생업연구가 약 32편(32%)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유적 단위로 석기를 검토하는 방식이 19편(16%)이고, 나머지는 10편 미만으로 나타난다(그림 1).

표 1. 신석기시대 석기의 연구방법과 주제별 현황¹⁾

시대별 연구방법과 주제	197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단순소개 · 비교(A)	4 50%	2 25%	3 20%			9 7%
개괄적인설명(B)	4 50%	1 13%	2 13%			7 6%
기종별 석기 양상 · 형태 · 변천 검토(C)		4 50%	6 40%	14 23%	8 27%	32 26%
유적단위로 석기검토(D)			1 7%	14 23%	4 13%	19 16%
석기제작수법과 체계 검토(E)		1 13%		3 5%	2 7%	6 5%
사용흔분석과 기능 검토(F)				4 7%	3 10%	7 6%
지역단위로 분석 · 석기조성 검토(G)			2 13%	19 32%	11 37%	32 26%
석재산지 및 교류관계 검토(H)				6 10%		6 5%
기 타(I)			1 7%		2 7%	3 2%
합계	8 100%	8 100%	15 100%	60 100%	30 100%	121 100%

1) 표는 본고에 예시된 논문에 한정하였는데 석기연구의 흐름을 보여주기에는 적당하다. 그리고 현황표의 일부 논문들 중 2개 이상의 주제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방법론적인 분석에 비중을 두어 하나의 개수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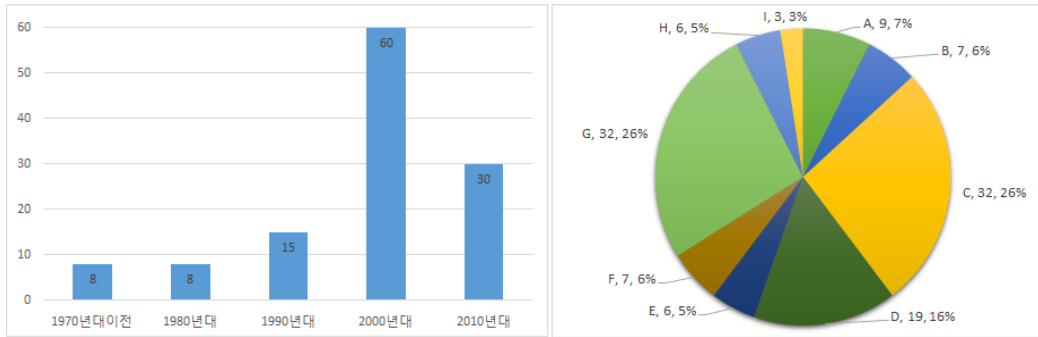


그림 1. 석기 연구의 연대별 현황과 연구 방법과 주제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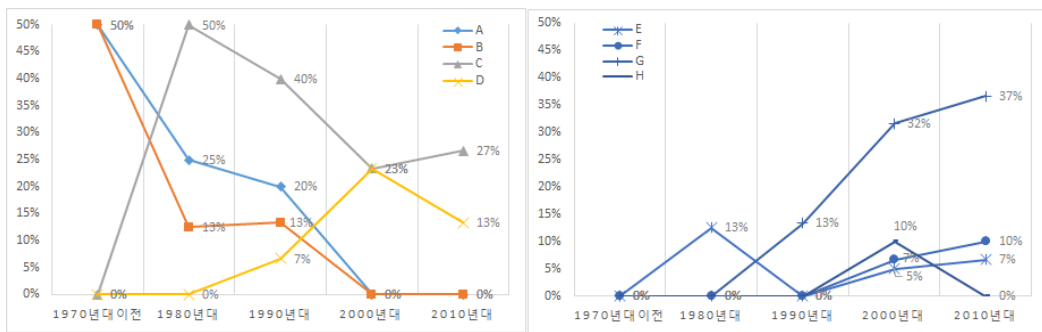


그림 2. 신석기시대 석기 연구방법과 주제별의 변천 비율

또한 연대별 연구 주제의 경향을 보면 1970년대 이전에는 8편의 논고가 있는데 모두 단순한 소개(50%)와 개괄적인 설명(50%)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것은 신석기시대 유적이 본격적으로 발굴이 되면서 유적에서 출토되는 석기를 소개하거나 단순한 기능과약을 통한 설명이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는 석기 기종에 대한 형태학적인 연구가 절반(50%) 가량이고 단순한 소개와 개괄적인 설명이 각각 25%를 차지하고 있다. 아마도 패총을 비롯한 해안가에 자리한 유적들의 발굴조사 보고서가 발간되면서 어로구 등 기종별 석기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패총의 층위에 따른 석기양상의 변천과 제작수법에 대한 검토가 새롭게 시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1990년대에는 전국적인 구제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면서 내륙지역에 입지한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다. 그래서인지 이 시기의 논문들은 내륙과 해안지역 유적의 생업검토와 비교, 해안지역의 생업양상과 시기적인 변천, 내륙지역 출토 석기의 용도와

사용방식, 그리고 내륙지역 유적의 성격해석, 농경에 대한 관심, 고산리 유적의 발견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논고들은 기종별 석기에 대한 형태분석이 약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새롭게 석기조성이나 유적 단위에 대한 해석에 집중되면서 농경도구와 어구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졌고, 남해안의 패총문화 양상과 변천이 정리되었다.

2000년대에는 석기연구의 논문 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이것은 1990년대에 조사된 발굴보고서의 발간과 함께 석기연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석기의 연구주제도 다양해지면서 새롭게 석기제작수법과 사용흔 분석, 석재 원산지와 교류 연구가 추가되었다. 그래도 연구의 주제는 석기조성을 통한 연구가 32%이고, 다음으로 석기 기종별 연구와 유적 단위의 석기 연구가 각 23%이다.

2010년대 초반에는 기존에 논의된 해석을 종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만 석기연구는 2000년대 마찬가지로 추가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종별 석기 분석(27%)과 지역 단위로 석기조성을 통한 생업연구(37%)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다만 좀더 보강된 형태분석과 변천관계에 대한 연구, 신석기 초창기 석기에 대한 관심과 제작수법에 대한 검토 그리고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석기 기능에 대한 연구는 긍정적인 방향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석기연구는 단순한 소개와 비교연구는 감소하지만, 기종별 석기에 대한 연구는 80년대 정점을 찍고 감소하다가 최근에 다시 형태적 연구가 증가하는 양상이다. 이에 반해 유적단위의 석기를 연구하거나 지역단위로 석기조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점에서 생업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제작기술과 기능, 유통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그림 2).

2) 앞으로의 과제

지금까지 석기연구를 시대별로 살펴본 결과 짧은 석기연구사에 비하여 적지 않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연구되고 해결되어야 많은 과제도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앞으로의 전망과 과제 등을 몇가지 범주로 나누어 간단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석기 연구의 공간적 범위와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이다. 지금까지의 석기 연구는 유적 또는 지역단위로 한정된 공간범위를 가진다. 이것은 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공간 범위가 협소하다. 아마도 석기라는 특수성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좀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를 범위로 하는 석기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 취락 유적이 증가하면서 유구를 통한 공간 활용이 제시되었

지만 석기 분포를 통한 공간 활용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다. 이것은 석기의 정확한 위치가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거나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는 취락 내 또는 취락 밖에서 석기의 분포양상에 대한 공간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석기의 형태학적 연구 방향에 대한 제언이다. 석기의 기종별 연구는 석기연구의 주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결합식조침, 석촉 등 마제석기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많다. 사실 유적에서 출토되는 석기의 일정 부분은 타제석기가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물론 일부 연구자에 의해 타제석촉, 작살 등이 연구되었지만 여전히 굽개, 침두기, 석검, 석도형석기, 갈돌과 갈판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가 부족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타제석기에 대한 기종 분류와 이에 따른 형태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는 석기의 기술적인 연구이다. 석기연구의 한축으로 기술적인 연구는 석기분류와 형태학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런데 타제석기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연구자의 부족 등으로 굴지구 등 특정 기종에 대한 연구만이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다양한 석기기종에 대한 제작기술, 제작과정과 변천에 대한 연구를 통한 지역과 집단의 공작체계를 밝혀야 하겠다.

넷째는 석기의 기능에 대한 연구의 증가와 더불어 석기조성을 통한 꼼꼼한 분석이 필요하다. 사용흔 분석이 근래에 진행되면서 석기의 기능과 사용방식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굴지구와 석부 등 특정석기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만 이루어지고 있다. 앞으로 석기 기종을 다양화하고 분석 수량을 늘리면서 실험 고고학적인 방법을 적용한다면 석기용도와 기능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이룩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석기조성을 통한 생업연구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현재의 연구는 단순히 수량적으로 비교하거나 변천을 살펴보고 있는데 석기 기종과 유적의 성격을 고려한 비교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취락, 입지, 석기의 규모, 종류 등 다양한 속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다.

다섯째는 석기의 교환과 유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석재에 대한 유통은 대한해협 사이를 두고 흑요석을 대표로 하는 교환망을 상정할 수 있지만 보다 다양한 암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행이 근래에 암질에 대한 분석이 보고서에 제시되는 빈도가 증가하면서 암질의 공급이 유적 주변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에 석기의 산지와 유통을 통한 경제활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여섯째는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석기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고산리를 기점으로 신석기 초창기에 대한 설정이 이루어졌는데 제주도지역에서 유적이 계속적으로 조사되

면서 초창기의 문화에 대한 실체가 일견 마련되었다. 그런데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석기에 대한 종합화된 검토가 이루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의 석기문화의 전개와 더불어 후기구석기 최말기와의 관계성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석기문화에 대한 검토를 하기 위해 유적에서 출토되는 다양한 석기에 대한 기술·형태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Ⅲ. 신석기시대 골각기의 연구 동향과 과제

1. 골각기연구의 연대별 동향

1) 1980년대 이전의 골각기연구

골각기는 신석기시대 도구체계의 중요한 축으로 석기와 더불어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재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로 유존율이 적거나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 출토양상이 달라 다른 도구에 비해 자료가 부족한 편이다. 그래서인지 골각기의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의 양도 적지만 출발도 늦은 편이다.

골각기의 연구는 북한에서 먼저 이루어졌다. 1950년대 발간한 공산 유적 보고서는 동물뼈들을 중분류하고 골각기에 관한 쓰임새를 추정하였다(과학원출판사 1957). 이후 1960년대에는 김신규에 의해 미송리, 농포, 무산 범의구석, 회령 오동, 토성리, 립석리 등에서 출토된 동물뼈에 대한 초보적인 분류가 이루어졌고 이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 서국태에 의해 집짐승기르기와 물고기잡이 등이 추론되었다(김신규 1960, 1962, 1963, 1964, 1965).

남한에서는 1970년 이전에는 대체로 자료를 소개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연구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인지 70년대에 들어서 지금까지 출토된 자료를 정리하거나 중국이나 유럽 등과 비교를 하였다(최무장 1976). 이때까지만 해도 조개더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많지 않고 자료의 양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관심이 적었지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1980년대에는 골각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흥미를 가진 연구자가 늘어났다. 연구는 2가지의 방향으로 나아갔다. 첫째는 당시까지 출토된 골각기의 자료를 정리하고, 개념과 관찰기준을 설정하며 시기별 또는 지역별 특징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황용훈은

당시까지 출토된 석기와 골각기를 정리하고 시기별로 살펴보았고(황용훈 1983). 이향숙은 상노대도·상시·점말용굴·금굴 유적에서 출토된 골각기를 대상으로 뼈와 조가비의 연모의 개념과 관찰기준, 제작방법 등을 제시하고 유적별로 출토된 골각기를 분류한 이후에 제작양상과 쓰임새를 제시하였다(이향숙 1987).

그리고 둘째는 골각기의 제작기법과 자른 자국흔을 찾아보려는 연구가 있었다. 조태섭은 점말용굴에서 출토된 골각기에 대한 실험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소뼈와 돼지뼈를 통한 실험을 통해 직접타격과 잔손질타격의 차이를 파악하고 층위적으로 검토하였다(조태섭 1986). 최삼용은 상노대도에서 출토된 동물뼈를 대상으로 제작기법과 자른 자국에 대한 관찰을 시도하였다(최삼용 1988).

한편 처음으로 수가리 패총 보고서의 부록편에 골각패제품과 동물 유체에 대한 분석이 제시되어 보고서 작성의 기본이 마련되었다(金子浩昌·牛澤百合子 1981)

2) 1990년대의 골각기연구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조개더미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급증하면서 골각기에 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 특히 선사시대부터 고대까지 전체 골각기를 형태분류하고 지역과 시간적인 변화를 파악하려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박종진은 구석기시대부터 철기시대까지의 유적에서 출토된 골각기를 분류하고 그 수량을 정리하였다. 이중 신석기시대 골각기는 동북지역군, 중서부지역군, 남부지역군으로 나누고 골각기를 일상용구, 수렵용구, 농경용구, 어로용구, 미술품, 기타 등으로 나누어 시기별로 살펴보았다(박종진 1991). 장명수는 석기와 골각기의 어로도구를 자돌어구, 조어구, 망어구로 분류하고 형식분류를 실시한 이후 시기적인 변화를 살펴보려 하였다(장명수 1991). 김아관은 처음으로 신석기시대 골각기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당시까지 출토된 24개 신석기시대 유적의 골각기를 모두 취합한 이후 특징을 살펴 골각기의 제작방법을 정리하고 종류와 기능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김아관 1993). 김건수는 신석기시대부터 삼국시대까지의 어로 방법을 맨손어법, 타격어법 등 9가지로 구분하고 고고학적 유물이 확인되는 자돌구와 조침, 어망추에 대한 시공간적인 검토를 하였다(김건수 1995). 이후 한국에서 출토된 골각기를 수렵·전투구, 어구, 경작구, 기타 골각기, 일상용구 등의 생산용구와 장신구, 주술구 등의 비생산용구로 구분하고 시기별·지역별로 특징과 재질을 검토하였다(김건수 1998). 또한 여기에서 나아가 패총을 종류와 특징에 따라 분류하고, 자연유물을 검토한 이후에 빗창, 어망추, 낚시, 자돌구 등의 어구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원시와 고대

의 어업의 특징을 살펴 3단계의 변화상을 제시하였다(김건수 1999).

한편 신숙정도 남해안지방의 조개더미 동물상을 살펴 계절성과 정착생활을 제시하였다. 일정기간 정착생활을 하였던 유적으로 동삼동, 상노대도 등을 제시하고 계절적인 거주형으로 수가리, 구평리, 울리 등을 제시하였다(신숙정 1994). 그리고 조태섭은 사천 구평리유적에서 출토된 사슴과 노루, 멧돼지 짐승뼈에 대한 자른 자국의 관찰하여 해체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고, 나아가 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동물상을 물짐승과 바다짐승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물짐승은 식육목이 많았고, 바다짐승은 고래목과 기각목이 비슷한 양상을 가진다고 하였다(한창균·최삼룡 1993; 조태섭 1993).

3) 2000년대의 골각기연구

90년대에는 선사와 고대의 골각기에 대한 형태분류와 지역적인 특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에는 연구의 주제가 다양해졌다. 세부적으로 개별기종에 대한 연구, 생업활동과 생계유형에 대한 연구, 제작기술에 대한 연구, 유적 또는 지역단위의 골각기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먼저 개별기종에 대한 연구가 있다. 이영덕은 골제단식고정작살의 분포와 형태를 검토한 이후 결구방식과 제작실험을 실시하고, 실험적인 방법을 통해 어류를 포획하는 잠수작살을 제시하였다(이영덕 2006).

둘째는 생업활동과 생계유형에 대한 연구가 검토되었다. 최종혁은 동물유존체와 석기, 골각기를 정리하여 동북지역과 중서부지방의 생산활동을 검토하였다. 동물유존체는 서식지를 중심으로 하고 석기와 골각기는 사용용도와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활동을 수렵, 채집, 농경, 어로활동으로 유형화하고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초기와 전기는 Aa유형이고, 중기는 Ac유형이며, 후기와 말기는 Ac유형, C유형, 기타유형 등 3가지의 유형으로 변화상을 보았다(최종혁 2001). 그리고 이준정은 남해안 조개더미 유적에서 출토된 패각자료와 동물 자료를 종합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시대에 따른 생업경제의 변화상을 제시하였다. 부산·김해지역은 후만기에 이용전략이 점차 육상자원으로 바뀌지만 고성·통영지역은 해상자원의 이용전략에 집중하다가 청동기시대에 육상자원 이용전략으로 변화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변화요인은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에 환경변화 및 인구증가로 인한 자원 불균형 현상을 고려하였다(이준정 2002). 이후 동삼동의 사슴 자료에 대한 동정과 계량화를 통해 사슴을 사냥하고 해체한 이후 특정부위만 거주지로 운반하는 행위를 파악하였다. 또한 중기의 거주기간에 비해 만기에는 거주기간이 단축되거나 계절적으로 유적

이 점유되었다고 보았다(이준정 2003). 김은정은 서해안 연평도 일대 조개더미 유적에서 출토된 동물유존체를 이용하여 각 조개더미유적의 이용전략과 생계 및 주거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은정 2006). 그리고 김현석은 한국 남해안지방과 일본 북부구주의 신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조개더미 유적에서 출토되는 동물상을 분석하여 동물자원을 이용한 생업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은 사슴류를 중심으로 사냥이 이루어졌던 반면에 구주지역은 멧돼지가 주된 사냥 대상이었다고 하였다(김현석 2008).

셋째는 골각기 제작기술과 자른자국 흔에 대한 최삼용의 연구가 있다. 골각기의 제작기술은 뼈의 특성과 활용된 짐승의 뼈대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한 이후 뼈연모의 제작단계를 마름질, 다듬기, 끝손질로 나누고 단계별 제작기술을 제시하였다(최삼용 2005). 또한 백령도 말등 유적에서 출토된 7점의 뼈유물에 대해 자른 자국을 분석하였다(최삼용 2001).

넷째는 유적 또는 지역단위로 골각기문화를 연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가네코 히로마사는 남해안지역에서 출토되는 골제품을 자돌구, 경골제 골기, 골제 작살(鈎頭), 장식품으로 나누고 검토하였다(金子浩昌 2002). 김선은 동삼동 패총에서 출토된 골각기를 자돌구, 낚시, 송곳, 예새, 뒤지개, 기타로 분류하고 층위별로 공반양상과 동정을 정리한 결과 초기에는 소극적인 패 채집활동과 활발한 어로·수렵활동이 이루어졌고, 전기에는 해상동물에 대한 포획이 증가하며 중기에는 수렵구와 어로구, 가공구가 증가하면서 바다 자원 뿐만 아니라 육상동물에 대한 사냥이 높아졌다. 후·만기에는 수렵과 어로, 패 채집이 소극적으로 변화하지만 석기구성에서 농경과 관련된 석기가 증가하는 양상이기 때문에 농경에 대한 생업활동이 증가하였다고 보았다(김선 2006).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는 동삼동패총전시관에서 어로문화를 주제로 종합된 연구가 진행되었다. 논문은 어로민의 생계유형(최종혁)과 내륙·해안지역의 어로문화(신종환, 김건수), 서남해안의 신석기시대 어로구와 어로방법(이영덕), 동남해안 지역의 어로구(하인수)로 나누어져 있다. 분석대상인 어로구의 대부분이 석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어로구의 일부 중 골각기가 포함되거나 언급되면서 논지가 전개되었다(동삼동패총전시관 2006).

한편 하인수는 여러 편의 논고를 통해 골각기를 분석하였다. 먼저 영남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골각기의 양상을 개괄적으로 고찰한 논고가 있다. 골각기를 생산도구와 가공구, 비실용구로 대별하였다. 그리고 중기에 이전시기와 달리 기종구성과 사용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잡곡농경의 확산에 따른 생업구조 및 생계양식의 다변화로 이해하였다(하인수 2006d). 이후 남해안지역으로 공간범위를 확대하였는데 종류와 소재에 따라 생산용구, 생활용구, 비실용구로 나누어 시간적인 변화를 검토하였다(하인수 2007, 2009b).

4) 2010년대의 골각기연구

연구는 많지 않지만 개별기종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생업연구, 골각기에 대한 자료 집성이 이루어졌다. 먼저 개별 기종에 대한 연구는 이상규와 지형배가 있다. 이상규는 골제 자돌구를 대상으로 속성을 분석하고 상관관계를 검토하여 형식을 나누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시공간적 양상과 제작기법을 검토한 이후 실험적으로 자돌구를 제작하여 사용실험과 사용흔 분석을 통해 용도를 제시하였다(이상규 2013a, 2013b). 지형배는 장신구와 이형유물에 대하여 검토하였는데 골재의 발식·수식이 많고 이식과 장식 품이 소량 확인되었다. 그리고 동물의 종과 부위에 따라 수골제 장신구, 수치제 장신구, 어골제 장신구로 나누고 시기적인 변화를 검토한 결과 조·전기와 중기로 양분되는데 이른 시기에 유물의 형식이 다양하고 수량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지형배 2013).

둘째는 동물 유체를 통한 생업연구가 있다. 이은은 신석기시대 생업활동의 양상을 패총유적에서 출토된 동물 유체를 통해 밝혀보고자 하였다. 먼저 신석기시대 환경 및 유적의 분포를 검토하고 유적에서 출토된 생업활동과 관련되는 인공유물 중 동물 유체를 패류, 어류, 포유류, 조류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포유류는 해서포유류의 강치와 육상포유류인 사슴과 멧돼지가 중심으로 주 식료자원으로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남해안에서는 어로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 바다를 통하여 제주도와九州지역과의 교류가 있었다고 보았다(이은 2010; 이은·김진수 2015). 그리고 이충민은 신석기시대 포유동물상을 조개더미 유적과 동굴바위그늘 유적으로 나누고 포유동물상의 성격과 특징을 각 유적별로 검토하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동해안지역에서는 육상포유류 중에 사슴과 동물(노루 등)을 주로 사냥했고, 서해안지방에서는 어패류를 중심으로 하는 어로활동이 있었다. 그리고 남해안과 동해안지역은 육상포유류가 많지만 동물의 종수가 적고 어패류를 비롯한 해서포유류 등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점유기간이 비교적 짧다고 보았다. 그리고 서부·중부내륙은 유적별로 동물상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특정 동물을 사냥하기 위한 사냥용 임시거주 유적으로 보았다(이충민 2011).

셋째는 골각기에 대한 자료집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출토된 한국 선사와 고대시대에 골각기를 유적별로 도면을 집성하고 시대별로 골각기를 개관하였다(한강문화재연구원 편 2014). 이 자료집에는 선사시대의 뼈연모의 제작기술과 시대별 골각기에 대해 정리되어 있는데 신석기시대 골각기는 하인수에 의해 기술되었다. 논고는 기존의 견해를 종합하였는데 골각기의 소재와 종류에 따라 생산용구(어로구, 수렵구, 채집농경구), 생활용구(가공구, 이형골기), 비실용구(장신구, 의례구)로 분류하고 각 기종별로 특징을 검토한 이후

시기별과 지역별로 골각기의 양상과 변화를 살펴보았다. 시기적으로 보면 조기의 골각기는 수량이 적지만 결합식조침을 중심으로 어로구가 골각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전기에는 기종구성에서 초기와 별다른 변화는 보이지 않고 동일한 양상이 지속된다. 중기에는 기종구성이 다양하고 양적으로 급증하는 양상이 관찰된다. 후·말기는 관련 자료가 부족하여 양상은 불분명하지만 중기와 유사할 것으로 보았다.

2. 골각기연구의 현황과 과제

1) 골각기의 연구 현황

골각기의 논문을 연구방법과 주제에 맞추어 연대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조사된 자료에는 약 38편의 논고가 있는데 연구의 시작은 1950년대부터이다. 하지만 연대상으로 보면 2000년대에 가장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현재 2015년인 점을 고려한다면 논문의 수량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총 편수에 알 수 있듯이 석기연구의 1/3 수준이기 때문에 석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주제별로 보면 형식분류와 시공간적인 검토(26%)와 생계유형과 생업검토(26%)가 전체 연구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

표 2. 신석기시대 골각기의 연구방법과 주제별 현황

시대별 연구방법과 주제	1970년대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합계
종의 분류 및 개괄적인 설명(A)	2 100%	1 20%	1 11%			4 11%
제작기법과 자국흔 검토(B)		2 40%	1 11%	2 13%		5 13%
형식분류와 시공간적인 검토(C)		2 40%	6 67%	2 13%		10 26%
개별 기종에 대한 검토(D)				1 7%	3 43%	4 11%
생계유형과 생업검토(E)			1 11%	6 40%	3 43%	10 26%
지역단위로 골각기문화 검토(F)				4 27%		4 11%
자료집성 및 기타(G)					1 14%	1 3%
합계	2 100%	5 100%	9 100%	15 100%	7 100%	3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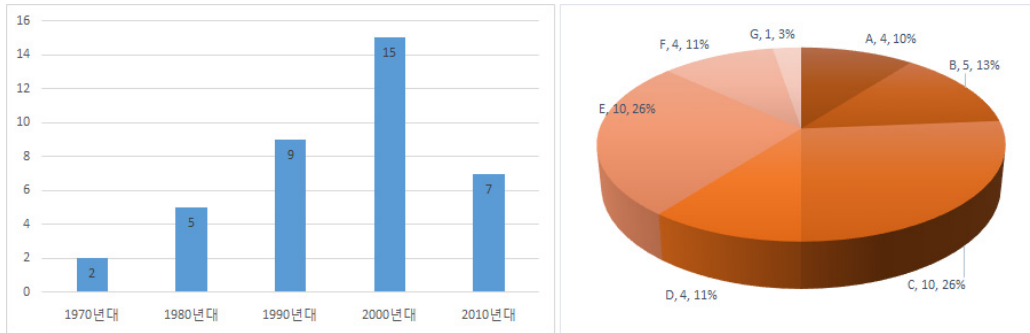


그림 3. 골각기 연구의 연대별 현황과 연구 방법과 주제의 비율

그리고 연구주제의 경향을 보면 1950년대에 북한에서 동물뼈에 대한 초보적인 분류가 이루어졌고, 이후 1960년대까지 중 분류에 대한 검토가 지속되면서 집짐승기르기와 물고기잡이 등에 대한 단순한 추론이 이어졌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이르면 남한에서도 자료를 소개하거나 비교하는 연구가 나타났다. 하지만 골각기의 본격적인 접근은 1980년대부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유적 단위로 골각기에 대한 분류와 개념, 관찰기준, 제작기법을 검토가 1차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유적의 시공간성을 살펴보거나 동물뼈의 절면의 자른 자국을 해석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에 처음으로 골각기에 대한 분석이 부록으로 첨부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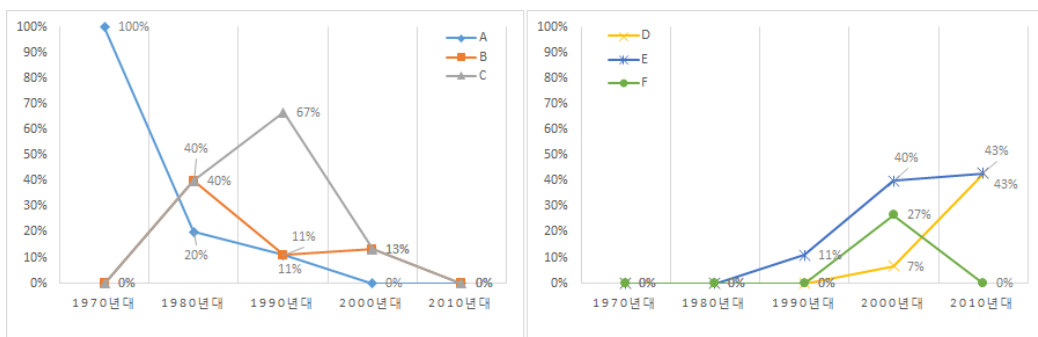


그림 4. 신석기시대 골각기 연구방법과 주제별 변천 비율

1990년대에는 선사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전시기를 망라하여 골각기를 검토하고 환경적인 요인과 접목시켜서 시공간적인 변화상을 살피는 연구가 중심(67%)을 이루었다. 2000년대에는 기존의 연구경향을 포함하여 개별 기종에 대한 연구, 개체수 파악을 통한

생계유형과 생업(40%)을 파악하는 새로운 연구주제가 제시되었다. 그리고 어로구와 어로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27%)도 이루어진 시기이다. 2010년대에는 연구의 수량이 많지 않지만 대체로 2000년대의 연구경향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근래에 골각기 자료집성이 마련되어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그림 4).

정리하면 골각기의 연구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단순한 분류와 개괄적인 설명, 제작기법과 흔적 검토, 형식분류와 시공간적인 연구경향에 있어서는 감소하는 반면에 개별 기종에 대한 검토와 생계유형과 생업에 대한 연구는 증가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2) 앞으로 과제

골각기는 유기물이라는 자료 확보의 한계와 더불어 형태적 불완전성이 높다. 그리고 동물뼈에 대한 동정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가 적고 논문의 수량도 많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골각기는 석기와 마찬가지로 도구로서 사회경제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연구의 초창기에 동물뼈를 동정하거나 해석에 집중되었다면 지금에는 개별 기종의 형태적인 연구와 생계유형의 검토가 중심을 이루고 있어 긍정적이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연구의 몇 가지 전망과 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골각기의 분류에 대한 기준 마련과 기종 분류에 대한 통일성이다. 연구자에 따라 골각기의 분류체계와 용어 개념에 대한 혼선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기준 마련과 표준안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겉면의 흔적과 사용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뼈의 동종과 분류, 기종 설정을 통한 빈도 분석이 중심을 이루었다. 하지만 뼈의 파쇄와 연모제작과의 관계, 실제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와 사용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소홀하게 다루고 있다. 앞으로는 현미경 관찰과 실험고고학적인 측면에서 기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는 지금까지 골각기의 기종과 조성이 지역적 또는 시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밝혀내었지만 좀더 주변지역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골각기문화의 출현과 전개를 종합적으로 연구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은 앞의 과제들과 모두 연결되는 것으로 전문숙련자의 교육이다. 이것은 골각기 뿐만 아니라 석기연구에 있어서도 현실적인 문제점이다. 앞으로 질적 성장을 위해 전문숙련자의 교육을 위한 소모임 등 연구모임의 양성화 또는 지속적인 관심을 유발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IV. 맺음말

신석기시대 석기와 골각기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석기와 골각기는 생활경제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도구로서 중요하지만 80년대 이전까지는 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이것은 아마도 신석기의 문화양상과 편년에 대한 확립이 부족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 전반적인 측면에서 신석기시대 편년과 문화양상에 대한 연구가 일정 궤도에 올라오면서 석기와 골각기에 대한 연구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별 기종에 대한 형태학적 연구, 조성에 대한 시공간적 특성과 변천을 파악하거나 생계유형에 대한 분석 등은 괄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물론 앞으로 과제도 여전히 산적해 있다. 기술적인 연구나 기능과 용도에 대한 분석, 유통과 교환, 광역적인 연구범위의 확립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충실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앞으로 석기와 골각기의 연구가 양질의 성장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10년 단위로 논문을 살펴보았지만 여전히 누락된 논문이 많다. 그리고 논문의 목적과 결과를 왜곡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필자의 공부 부족이라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보완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강창화, 2005,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제주도의 고고학』 제13호 호남고고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강창화, 2006, 「제주 고산리 신석기문화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국사편찬위원회, 1973, 『한국사』 1.
- 국사편찬위원회, 1983, 『한국사론』 12(한국의 고고학 I · 下).
- 구자진, 2004, 「대천리 신석기유적의 토기와 석기에 대한 연구」, 『호서고고학보』 11.
- 고고학 및 민속학연구소 편, 1995, 「궁산 원시 유적 발굴보고」, 『유적발굴보고(I · II)』, 민족문화.
- 고동순, 2006, 「동해안지방의 신석기시대 마제석촉에 대한 고찰」, 『강원고고학보』 7-8.
- 고재원, 1996, 「제주도 고산리 석기의 분석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진선, 2006, 「군산 노래섬유적의 신석기시대 석기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곽진선, 2011, 「서해안지역 석기조합양상과 시기별 변화양상-군산 노래섬유적 출토품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연합대회 발표자료집』 제1회, 한국고고학회.
- 길경택, 1985, 「한국선사시대 농경과 농구의 발달에 관한 연구」, 『古文化』 27.
- 김건수, 1995, 「한반도의 원시 고대어업」, 『한국상고사학보』 20.
- 김건수, 1998a, 「호남지방의 신석기시대 생업」, 『호남고고학보』 7.
- 김건수, 1998b, 「우리나라 골각기의 분석적인 연구」, 『호남고고학보』 8.
- 김건수, 1999, 『한국 원시 · 고대의 어로문화』 (학연문화사).
- 김건수, 2005, 「우리나라 선사 · 고대의 함정어업」, 『호남고고학보』 21.
- 김건수, 2008,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패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59.
- 김경규, 2003, 「한반도 신석기시대 어로활동 연구-어망추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진, 2010, 「석기 사용흔 분석과 기능 연구」, 『한강고고』 4.
- 김경진 · 김소영, 2012, 「신석기시대 망치형석기의 기능 연구」, 『중앙고고연구』 11.
- 김 선, 2006, 「동삼동폐총 출토 골각기에 대한 일고찰」,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선지, 2000, 「남해안의 신석기시대 석부에 대한 일고찰」,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성욱, 2008a, 「韓國南部地域における初期農耕文化の研究」, 熊本大學大学院 文學博士學位論文.
- 김성욱, 2008b, 「사용흔분석을 통한 신석기시대 수확구 시론」, 『한국신석기연구』 16.
- 김신규, 1961, 「미송리동굴의 동물유골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1-6호.
- 김신규, 1962, 「농포 원시유적의 동물유골에 대하여」, 『문화유산』 1962-2호.
- 김신규, 1963, 「무산 범의구석유적에서 나온 포유동물상」, 『고고민속』 1963-4호.
- 김신규, 1963, 「회령 오동유적에서 나온 포유동물상」, 『고고민속』 1963-3호.

- 김신규, 1964, 「토성리유적에서 출토된 짐승뼈」, 『고고민속』 1964-2호.
- 김신규, 1965, 「립석리 원시유적에서 나온 짐승뼈에 대하여」, 『고고민속』 1965-1호.
- 김아관, 1993, 「한국 신석기시대의 골각기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준·김경진·이한주, 2015, 「보령 송학리 조개더미 출토 뿔석기의 기술-기능적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29.
- 김은영, 2006, 「신석기시대 연평도지역의 생계·주거 체계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원용, 1963, 「韓國文化의 考古學的 研究」, 『韓國文化史大系』 I,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김원용, 1973·1977,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 김원용, 1981, 「각지방의 토기·석기·골각기」, 『한국사』 I, 국사편찬위원회.
- 김정배, 2015, 「제주 고산리유적 출토 유경첨두기의 검토」, 『제주도의 구석기연구 현황과 성과』 제15회 한국구석기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구석기학회.
- 김주용·고상모·안승모·이영덕, 2005, 「진안 갈머리·좌포리유적, 군산 노래섬패총 출토 석재의 암종감정을 위한 박편관찰」, 『한국신석기연구』 9.
- 김충배, 2002, 「신석기시대 낚시바늘 연구-형식분류와 유적환경에 대한 일고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충배, 2003, 「신석기시대 낚시바늘 연구(I)」, 『한국신석기연구』 5.
- 김충배, 2004, 「신석기시대 낚시바늘 연구(II)」, 『한국신석기연구』 6.
- 김현석, 2008, 「동물자원으로 본 한일 선사시대 생업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도유호, 1961, 『조선 원시 고고학』 (과학원 출판사).
- 동삼동패총전시관, 2006,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 박근태, 2006, 「고산리유적 석촉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근태, 2009, 「신석기시대 초창기단계의 석기검토-제주도를 중심으로-」, 『고고광장』 5.
- 박근태, 2011a,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검토-초기 유적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 연합대회 발표자료집』 제1회, 한국고고학회.
- 박근태, 2011b, 「제주도 신석기시대 석기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1.
- 박근태, 2014, 「신석기시대 석기의 용어와 분류」, 『한국 신석기시대 석기의 분류와 제작수법』 4. 제4회 집중토론회자료집, 한국신석기학회.
- 박근태, 2015, 「제주 고산리유적 석기의 문화적 위치와 성격」, 『제주도의 구석기연구 현황과 성과』 15. 제15회 한국구석기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구석기학회.
- 박성근, 2012,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석부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근, 2013,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석부 연구」, 『한국고고학보』 86.
- 박준범, 1998, 「한강유역 출토 돌화살촉에 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준범, 2006, 「한강유역 출토 선사시대 간돌화살촉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2.
- 박준범, 2007, 「신석기시대 중서부지역의 생업활동-석기분석을 중심으로-」, 『중서부지역 신석

- 기문화의 제문제』, 서울경기고고학회·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 박준범, 2008, 「신석기시대 서울·경기지역 출토 간석기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5.
- 박준범, 2009, 「서해북부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동삼동패총 전시관.
- 박종진, 1991, 「한반도 선사시대 골각기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1977, 『조선고고학개요』 (과학백과사전출판사).
- 소상영, 2013, 「한반도 중서부 지방 신석기시대 생계·주거 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은숙, 1998, 「호남 내륙지역 신석기문화에 대한 고찰」, 『호남고고학보』 7.
- 송은숙, 2001, 「신석기시대 생계방식의 변천과 남부내륙지역 농경의 개시」, 『호남고고학보』 14.
- 송은숙, 2002, 「한국 빗살무늬토기 문화의 확산과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숙정, 1994, 『우리나라 남해안지방의 신석기문화연구—동삼동·김해·남해도서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 신숙정, 1990, 「북한 고고학계의 신석기문화 연구 동향」, 『박물관기요』 6,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 신숙정, 1997, 「석기와 뼈연모」, 『한국사』 2, 국사편찬위원회.
- 신숙정·손기연, 2002, 「강원지방의 뎀(打製)석기 연구」, 『강원고고학보』 창간호.
- 신종환, 2000, 「錦江式土器考」, 『考古學誌』 11.
- 신종환, 2006, 「신석기시대 내륙지역의 어로문화」,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안성희, 2011, 「남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조성과 시기별 양상」, 『한국고고학 연합대회 발표자료집』 제1회, 한국고고학회.
- 안승모, 1985, 「韓國半月形石刀의 研究—發生과 變遷을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안승모, 1987, 「療西地方의 先史時代 石製農具」,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叢』 I 考古學篇.
- 안승모, 1993, 「東아시아 초기수확구의 종류와 분포」, 『민속문화』 6.
- 안승모, 1998, 「北中國 新石器時代의 農具」, 『東아시아 先史時代의 農耕과 生業』 (학연문화사).
- 안승모, 1988, 「신석기시대」, 『한국고고학보』 21.
- 이강승·박순발, 1995, 『屯山』, 충남대학교박물관.
- 이기길, 1991,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 주민들의 생계유형—암사동·동삼동·오산리 유적을 중심으로—」, 『박물관기요』 7, 단국대학교중앙박물관.
- 이기길, 2015, 「제주도에서 보고된 좀돌날석기에 대하여」, 『제주도의 구석기연구 현황과 성과』 제15회 한국구석기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구석기학회.
- 이동주, 2003, 「즐문토기 단계의 석기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한일신석기시대의 석기』, 제5회 한일신석기연구회 발표요지.
- 이동주, 2003, 「빗살문토기 단계의 석기내용과 특징」, 『한국신석기연구』 6.
- 이동주, 2010,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마제석촉의 연구」, 『문물연구』 17.
- 이상규, 2013a, 「신석기시대 골제 자돌구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상규, 2013b, 「신석기시대 골제 자돌구의 제작과 용도」, 『영남고고학』 65.
- 이상규, 2014, 「신석기시대 한반도 해안지역 작살에 관한 검토」, 『한국신석기연구』 27.
- 이상균, 2003, 「신석기시대 한반도 남해안 석기군의 양상」, 『일한신석기시대의 석기』, 제5회 일한 신석기시대 연구회 발표요지.
- 이성주, 1992, 「신석기시대」, 『한국 선사고고학사』 연구현황과 전망, 까치.
- 이영덕, 2006a, 「서·남해안 신석기시대 어로구와 어로방법」,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 패총전시관.
- 이영덕, 2006b, 「신석기시대 잠수작살의 가능성」, 『한국신석기연구』 11.
- 이영덕, 2015, 「신석기시대 연구사-도구와 생업을 중심으로-」, 『한국의 고고학사 I』, 한국상고사학회 제43회 학술대회.
- 이 은, 2010,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생업활동 연구-패총 출토 동물유체를 중심으로-」,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김진수, 2015, 「호남지방 신석기시대 생업활동에 대한 연구 : 패총 출토 유물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49.
- 이정재, 2009, 「강원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생업경제에 대한 연구-석기조성과 그 변천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재, 2011,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검토를 통한 생업의 변화-오산리 C유적 출토 석기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 연합대회 발표자료집』 제1회, 한국고고학회.
- 이준정, 2002, 「남해안 신석기시대 생계 전략의 변화 양상-패총 출토 동물 자료의 새로운 해석」, 『한국고고학보』 48.
- 이준정, 2003, 「동물 자료를 통한 유적 성격의 연구-동삼동 패총의 예-」, 『한국고고학보』 50.
- 이청규·고재원, 1995, 「고산리 유적과 석기유물」, 『제주 신석기문화의 원류』, 한국신석기연구회.
- 이춘영, 1970, 「韓國農業技術史」, 『韓國文化史大系』 II,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 이춘영, 1973, 「韓國農耕起源에 관한 小考」, 『民族文化研究』 7, 고려대민족문화연구소.
- 이현종, 2000, 「호남지역 신석기시대 타제석기 제작기법의 제양상 -장년리당하산 유적을 중심으로-」, 『先史와 古代』 15.
- 이현종, 2002, 「우리나라 후기구석기 최말기와 신석기시대로의 이행기의 문화적 성격」, 『전환기의 고고학 I』, 한국상고사학회편.
- 이현종, 2015, 「우리나라 후기구석기 최말기와 신석기시대로의 이행기의 문화적 성격」, 『전환기의 고고학 I』, 한국상고사학회편.
- 이현종·김진수, 2008, 「신석기시대 여서도패총유적 자갈돌 석기의 고고학적 의미 연구」, 『도서 문화』 31, 목포대학교도서문화연구소.
- 이향숙, 1987, 「한국 선사시대 간 뼈·조가비 연모의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형우, 2005, 「포인트형 석기를 통한 인류행위의 고찰」, 『제주도의 고고학』 제13회 호남고고학회

발표자료집.

- 임상택, 2000,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에 대한 초보적 검토 I -석기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 창간호.
- 임상택, 2006,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상택, 2008, 「신석기시대 대한해협 양안지역 교류에 대한 재검토」, 『영남고고학보』 47.
- 유지인, 2012,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지역 취락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지인, 2012, 「신석기시대 중·후기 중서부 해안지역 취락의 석기조성 양상」, 『중서부지역의 신석기문화』 2012년 한국신석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윤정국, 2006, 「진그늘유적에서 나온 신석기시대 뿔석기의 제작수법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정국, 2007, 「신석기시대 석기 제작체계 연구-진그늘유적을 대상으로-」, 『사림』 28.
- 윤정국, 2009, 「신석기시대 굴지구의 제작기법에 대한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7.
- 윤정국, 2011, 「남부내륙지역 신석기시대 석기의 변천과 양상」, 『한국신석기연구』 22.
- 윤정국, 2014, 「신석기시대 석기의 제작수법」, 『한국 신석기시대 석기의 분류와 제작수법』 제4회 집중토론회자료집, 한국신석기학회.
- 윤정국, 2015, 「한국 신석기시대 석기제작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윤지연, 2006, 「한반도 중서부지역 석부에 대한 일고찰 : 신석기~청동기 석부의 기능과 변화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지현, 2007, 「사용흔 분석을 통한 석부의 기능 연구 : 중서부 지역 신석기시대~청동기시대 전기 석부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63.
- 윤희나, 2011, 「한국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의 석기조성과 생업」,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명수, 1991, 「신석기시대 어구의 형식분류와 편년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용준, 2006, 「한국 후기구석기의 제작기법과 편년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호수, 1982, 「상노대도 조개더미 유적의 석기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호수, 1988, 「상노대도 유적의 석기」, 『손보기박사정년기념 고고인류학논총』.
- 정미란, 2007,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생업활동-조기~전기유적의 어로활동을 중심으로-」, 경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1, 『한국 신석기문화 개론』 (서경문화사).
-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2,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서경문화사).
- 중앙문화재연구원 편, 2014, 『한국 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 (진인진).
- 조남철, 2005, 「한반도 남부 신석기 유적 흑요석의 특성화 연구」, 『강원고고학보』 4-5.
- 조미순·박윤정·좌용주, 2013, 「고성 문암리유적 출토 석기의 원산지 추정」, 『한국신석기연구』 26.
- 조태섭, 1986, 「점말용굴의 뼈연모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태섭, 1993, 「우리 나라 남해안 지역의 신석기시대 동물상」, 『사천 구평리 유적』,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 조은하, 2014, 「강원 영동지역 신석기시대 농경 수용과 생계양상의 변화」,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지건길·안승모, 1983, 「韓半島 先史時代 出土 穀類와 農具」, 『韓國의 農耕文化』, 경기대학출판사.
- 지영배, 2013, 「한반도 신석기시대 장신구 및 이형유물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천성주, 2010, 「신석기시대 결합식조침 검토」,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용·문수균, 2013, 「신석기시대 찔개살 제작 및 사용 실험 연구」, 『중앙고고연구』 13.
- 최득준, 2012, 「한반도 신석기시대 결합식조침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무장, 1976, 「한국선사시대의 골기」, 『문화재』 10.
- 최무장, 1978, 「韓·中 先史時代의 農具」, 『白山學報』 24.
- 최삼용, 1988, 「상노대도유적의 동물뼈화석에 나타난 자른자국」, 『손보기박사 정년기념 고고인류학 논총』 (지식산업사).
- 최삼용, 2001, 「백령도 말등유적의 뼈유물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2.
- 최삼용, 2005, 「신석기시대 뼈연모 제작기술 연구」, 『한국신석기연구』 10.
- 최종혁, 2001, 「생생활동에서 본 한반도 신석기문화—중서부지방과 동북지방의 패총유적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 2.
- 최종혁, 2004, 「신석기시대 남부지방 생업에 대한 연구」, 『제주도 신석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한국신석기학회 발표집.
- 최종혁, 2005, 「한국 남부지방 농경에 대한 연구—석기조성을 중심으로—」, 『한국신석기연구』 10.
- 최종혁, 2006, 「신석기시대 어로민의 생계유형」,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하영중, 2010, 「동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석기 검토—울진 죽변리유적을 중심으로—」, 『동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삼한문화재연구원·한국신석기학회.
- 하재령, 2015, 「한반도 신석기시대의 침두형석기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하인수, 1991, 「부산 다대포·용호동출토 석기류」, 『부산직할시립박물관 연보』 13.
- 하인수, 2006a, 「동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어로구」, 『신석기시대의 어로문화』, 동삼동패총전시관.
- 하인수, 2006b, 「영남해안지역의 신석기문화 연구—편년과 생업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하인수, 2006c, 「신석기시대 한일문화교류와 흑요석」, 『한국고고학보』 58.
- 하인수, 2006d, 「신석기시대 골각기의 양상」, 『한국신석기연구』 11.
- 하인수, 2007, 「신석기시대 남해안지역의 골각기문화」, 『선사·고대의 골각기』, 복천박물관.
- 하인수, 2009a, 「신석기시대 석기의 종류와 양상」, 『박물관연구논집』 15, 부산박물관.
- 하인수, 2009b, 「신석기시대 남해안지역의 골각기문화에 대한 고찰」, 『고문화』 73.
- 하인수, 2010, 「범방유적의 석기 검토」, 『부산대 고고학과 창설20주년 기념논문집』, 부산대학교 고고학과.
- 하인수, 2011, 「신석기시대 석기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고고학 연합대회 발표자료집』 제1회,

한국고고학회.

한강문화재연구원 편, 2014, 『한국 선사·고대의 골각기』 (서경문화사).

한국고고학회, 2007·2010, 『한국 고고학 강의』 (사회평론).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편, 2010, 『한국의 조개더미(패총)유적』.

한창균·최삼용, 1993, 「젓먹이짐승뼈에 나타난 자른 자국의 관찰과 분석」, 『사천 구평리 유적』,
단국대학교 중앙박물관.

황용훈, 1983, 「石器·骨角器」, 『韓國史論』 12.

高橋豊·河仁秀·小畑弘己, 2003, 「螢光X線分析에 의한 東三洞·凡方遺蹟 出土 黑曜石 產地推定」, 『한국신석기연구』 6.

西谷 正, 2002, 「東北アジアの中の韓半島の鞍形磨臼」, 『5,000년 전의 대동강문화와 암사동유적』,
한국선사고고학회.

上條信彦, 2005, 「先史時代の 製粉 加工具」, 『한국신석기연구』 10.

金子浩昌·牛澤百合子, 1981, 「수가리패총출토 골각패제품 및 동물유존체」, 『수가리패총』 I,
부산대학교박물관.

金子浩昌, 2002, 「韓國新石器時代 貝塚과 漁撈活動」, 『한국 신석기시대의 환경과 생업』, 동국
대학교매장문화재연구소.

包艷玲, 2009, 「중국 교동반도와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생업활동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

Review of Research on the Neolithic Stone Tools and Bone Implements in Korea

Yoon Jeong Guk

This paper has arranged research on stone tools and bone implements of the Neolithic Age and reviewed the necessary steps to take in order to further the analyses. Research on stone tools carried out before the 1970s was focused on simple introductions and general explanations. In the 1980s, morphological research commenced on the types of stone tools. In the 1990s, studies came to focus on livelihood-based reviews and comparisons of the historic sites, their chronological changes, as well as the usage of the stone tools. In the 2000s, researchers analyzed stone tool production techniques and the traces of their utilization. In the 2010s, the precision and content of the analyses were reinforced based on reviews of the existing interpretation and added materials. Research was also carried out on their production and functions. Researchers saw the need for widening the spatial range; spatial analysis of relics; research on chipped stone tools; the production of stone tools and their functions; stone tool formation and precision of livelihood; research on exchanges and distribution; and review of the early stone tool culture were also relevant.

As for research on bone implements, it started in North Korea in the 1950s and continued until the 1970s with the focus on simple suppositions on animal bones. During the 1980s, thorough research was carried out, including the classification of bone implements in each historic site and a review of production techniques or the traces of cutting. In the 1990s, research was made with the focus on reviewing the bone implements used throughout the entire period, in addition to the inquiry of temporospatial changes linked to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2000s, new research made inroads on individual types and livelihood. In the 2010s, research on bone implements started with the focus on their status and is proceeding in the direction of studying the Neolithic livelihoods. The tasks to be done include establishing a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and standardization of bone implements, review of their usage and methods of use, a comprehensive comparison and review of the bone implements-related culture, and continued professional education.

Key words : Neolithic Age, stone tools, bone implements, research trend

